



박신혜

“실패할 줄 알았는데...”

‘닥터스’서 ‘셴 언니’로 변신 성공
‘흥행 아이콘’ 등극 ... 광고도 완판

“이번에는 실패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매번 잘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실패를 각오했고, 잘 안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고 했어요.”
‘실패’를 예상했다는 소속사의 고백이다.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다.
6회 만에 전국 시청률 20%에 0.3%포인트 모자란 성적을 냈다. 방송사와 광고주가 주목하는 수도권 시청률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물론 광고는 완판 행진이다.
SBS TV 월화극 ‘닥터스’의 주인공 박신혜의 승승장구가 이어지고 있다.
◇ ‘이웃집 꽃미남’ ‘상속자들’ ‘피노키오’ 이어 ‘닥터스’까지
박신혜가 주인공을 맡아 히트작 행진을 시작한 때는 2013년이다. tvN ‘이웃집 꽃미남’과 SBS ‘상속자들’이 난란히 그해 터졌다.
이어 2014년 SBS ‘피노키오’를 성공시킨 그는 다시 현재 ‘닥터스’로 흥행몰이 중이다. 물론 앞서 지난 2009년 장근석과 호흡을 맞춘 SBS ‘미남이시네요’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흥행하면서 ‘달력’ 한류스타가 된 그이지만 아직은 어렸다.
뒤이어 선보인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2010)과 MBC ‘넌 내게 반했어’(2011)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갈 길이 멀어 보였다.
그런 그가 스물셋이 된 2013년부터 한 작품을 책임진 여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캐스팅 1순위로 올라섰다.

2013년은 아역배우 출신인 그가 데뷔 10년을 채운 해이기도 하다.
10년 경험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등급 최강의 연기력을 겸비했던 박신혜는 이때부터 20대로 접어든 여배우가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모습을 매력적으로 과시했다.
‘이웃집 꽃미남’을 끝낸 직후 ‘아역의 이미지를 벗으려고 힘겹게 노력하지 않고 내 나이에 맞게 조금씩 성장해 간 것 같다.
지금은 소녀와 숙녀 사이의 경계에서 숙녀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던 박신혜는 3년이 지난 현재 어떤 모습도 어울릴 아름다운 아가씨가 됐다.
◇ ‘셴 언니’로 돌아온 박신혜 ... 이미지 변신으로 성공신화 이어가
‘닥터스’의 1회에서 박신혜가 보여준 모습은 낯설었다. 살이 많이 빠진 데다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액션 여전사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간 유지해온, 송털이 보송보송하고 청순한 소녀의 이미지를 단숨에 깨버린 선택에 어색함과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회를 거듭하면서 박신혜는 모든 논란을 연기력으로 극복했고, 원래부터 액션이 잘 어울렸던 듯 기특기 없는 ‘셴 언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박신혜가 ‘닥터스’를 선택한 것은 애초 제목이 ‘여강패 해장’이었던 이 드라마의 주인공 배경이 수동적인 여성상이 아닌,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

기 때문이었다.
의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집안으로도 눈길이가는데, 해정은 수술실 밖에서 칼 든 괴한과의 격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짜릿함을 안겨준다.
멜로의 상대역인 김래원을 첫 만남에서 업어치기로 제압한 것은 이미지 변신에 대한 박신혜의 선언으로 다가왔다.
◇ 누구와도 어울리는 멜로호흡 ... 송혜교 뒤 잇따
연타석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신혜가 송혜교의 바통을 이을 재목으로 떠올랐다.
박신혜는 장근석, 이민호, 이종석, 정용화, 윤시윤 등 서너 살 차이가 나는 남자 배우들에 이어 ‘닥터스’에서 9살 차이가 나는 김래원과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매끄러운 호흡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칫 나이 차에서 오는 간극이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만, 박신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김래원과 ‘달달한’ 로맨스를 연출한다.
역시 아역배우 출신 송혜교가 오랜 경험과 타고난 미모를 바탕으로 연상은 물론, 세 살 연하인 송중기와도 이보다 달콤할 수 없는 조화를 이뤄냈듯, 박신혜 역시 누구와 붙여놓아도 물처럼 상대방에게 스며들며 매번 최상의 시너지를 내고 있다.
소속사 솔트엔터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박신혜가 누구와도 어울리는 캐미를 발산한다는 게 다시 증명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색다른 재난영화
흥행 자신있어요”



8월 개봉작 ‘터널’ 배우나

“터널 안의 하정우, 터널 밖의 오달수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주 재미있어요. 터널 안팎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멋진 연기를 보면서 잘되었구나 싶었어요.”
배우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는 8월 개봉하는 영화 ‘터널’의 흥행을 자신했다.
대형 재난영화인 ‘터널’은 갑자기 무너져버린 터널에 홀로 고립된 자동차 판매원 ‘정수’(하정우 분)와 그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 ‘정수’의 아내 ‘셴현’(배우나), 구조대장 ‘대경’(오달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나는 “전형적인 재난영화였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원작이 있지만 전혀 다르게 그렸어요. 터널 안팎 인물 군상의 모습이 세밀하게 그려져요. 유머러스하기도 해요. 목숨이 걸린 급박한 상황이지만 건조한 블랙 유머가 살아있어요.”
그는 자신이 맡은 셴현에 대해 “공정히 의연하다”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내가 하면 셴현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고 말했다.
“영화에서 원하는 셴현의 돈을 제가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various TV programs for the 11th.

EBS1

Table with 4 columns: Time,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for the 11th.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1일(음 6월 8일 甲午)

Table with 2 columns: Zodiac Sign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Prediction. Provides daily fortune for each zodiac sign.